

신재생에너지 보급 나선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무주군, 36억원 투입 적상·안성·부남면 지역 377가구에 설비 지원 추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연료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 융·복합 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이목을 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냉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이나 공공기관, 상업 건물 등지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적상면과 안성면, 부남면 지역 377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동필 과장은 "사업 신청은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기

회를 잡지 못한 분들이 140가구나 된다"며 "다행히도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가 2월 17일 통과가 돼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안전장치(타이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된 안전 관련 사업들도 일반가구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정무주 실현과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에 힘쓰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온 무주군은 2021년 무주를 278가구(2021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지

원했다. 또 지난해에는 무풍·설천면 155가구(2022년)를 지원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읍 주민 김 도 씨(72세)는 "요즘 난방비와 전기세 때문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저희는 태양열 설비를 진즉에 설치한 덕을 토포하고 있다"며 "경제적 도움 말고도 환경에 일조를 하는 일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군민 안전·복지 향상 위해 올해 4개 항목 추가 가입

장수군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중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상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급~5급) 등 11개 보장 내역 외에 추가로 △가정 불립 사

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원하는 4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 시 (주)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 3,500만원이 지급됐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장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10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19농가 395명 도입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앞두고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인권분야를 강조했다.

교육 분야는 △전북인권센터 전문형 센터장이 노사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성희롱 분야 △진안군 고문 노무사 신용순 노무사가 고용주와 피 고용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법률을 근거로 농업경영 노사관리 △이호을 인력지원팀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이탈을 방지하고, 영농기 이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심사비 연중 지원

무주군은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를 더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검사비 및 인증심사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이들 비용에 대한 실지금액을 농가에게 전액 지원하고 있다. GAP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농산물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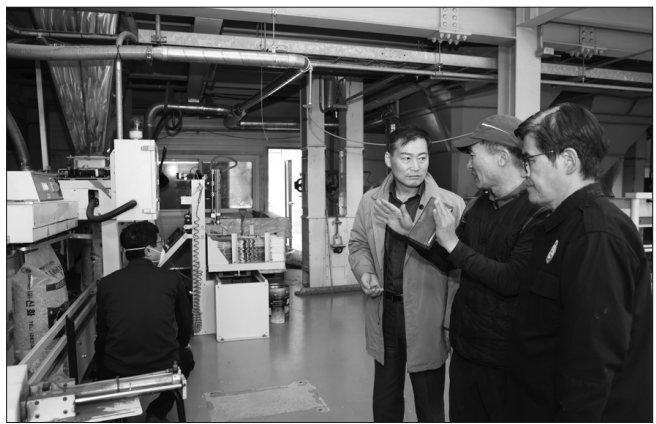
GAP 신청에 따른 안전성 검사비를 모두 지출하고, GAP 인증을 받으면 지출한 검사비 및 심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산림분야 선진화 위한 현장견학

무주군 목재문화체험장·목재펠릿공장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9일 산림자원 목재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무주군 내 위치한 목재문화체험

장 및 목재펠릿공장을 방문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2017년 4월 산림청 공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9일 산림자원인 목재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무주군 내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목재펠릿공장을 방문했다.

모사업으로 선정돼 목공체험장, 상상 놀이터, 전시시설, 휴식공간 등을 갖춘 공간으로 급진 3월 3일 개장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의 생산부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과 직접체험을 통해 목재의 혜택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목재문화 진흥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이다.

전 군수는 버려진 임목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펠릿을 생산, 판매하는 목재펠릿공장을 방문 펠릿의 생산과정 및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펠릿공장은 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펠릿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공급상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은 전형적인 산림강군으로 산림자원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감축 뿐만 아니라 목재를 이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목재산업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족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7가정이 늘어난 2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더 많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고향에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구당 5백만 원 이내의 항공료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자녀에 한해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항공료가 부담됐던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고향나들이 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무주군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마늘·양파 생육재생기 피해 예방 당부

무주군은 월동 후 마늘·양파 작목에 대한 생육재생기를 맞아 병해충 감염 등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생육재생기는 겨울동안 생장을 멈추었던 마늘과 양파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 무주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늘·양파도 월동 후 생육재생기로 지역에 따라 10cm이상 잎줄기가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마늘·양파의 잎이 2~3대 가량이 되고 잎줄기가 10cm 정도로 신장하게 되면 보존재 밖으로 잎을 꺼내는 유인작업을 해야 한다.

웃거름은 식물체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온도 4℃가 되는 시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관행적으로 2회 나누어 시비해오고 있으나

3회 분시하면 5.8%가량 수량이 증대되고 저장 중 손실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비오기 2~3일 전 웃거름을 주면 식물체가 비온 뒤 수분을 흡수하면서 양분을 같이 흡수하게 되어 시비효과가 증대된다.

마늘·양파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잎마름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잎마름병은 곰팡이병으로 월동기 이후 오래된 잎이나 상처받은 잎을 통해 감염되며 수확기까지 피해를 끼친다. 증상은 잎이 마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색 포자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방제 방법으로는 잎마름병 방제용 살균제를 사용 적기 및 안전사용시기에 맞춰 정량을 살포하며 수시로 살균감염된 식물체 등 잔재물을 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운장산 고로쇠 축제현장서 진안고원물 라이브커머스

진안군 지역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물'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운장산 고로쇠 축제 기간 중 첫날인 11일 오후 2시 축제현장에 마련한 오픈스튜디오에서 고로쇠 수액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이번 고로쇠 수액 라이브커머스는 축제장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해 축제 방문객들과의 소통·호응하며 현장감 있게 진행했다.

고로쇠 라이브 방송은 1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라이브방송 중에만 적용되는 20% 라이브특가로 할인 판매했다.

이날 방송은 김미화 주천면 이장은

비롯한 주천면민과 축제장 현장을 방문한 방문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고로쇠 수액으로 밥 짓기, △고로쇠 수액 된장찌개, △고로쇠 수액으로 끓여 만든 진안고원 흑돼지 수육, △고로쇠 향신간장 피클, △고로쇠 막걸리, △오미자청 고로쇠 주스 등 고로쇠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했다. 이어 '빼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을 가진 고로쇠 수액의 효능·효과와 함께 진안고원 운장산 자락에서 생산된 고로쇠 수액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